유아영재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사전진단도구의 하위요인별 예언타당도 분석

탁 은 정 (건국대학교), 진석언(건국대학교)
전 미 란 (서울대학교), 최승언(서울대학교)

I. 서 론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교육 현장에서의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점차 권내 교육으로 확산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 내에서의 영재의 선발과 교육의 실시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오정명, 2004).

그러나 이와 같은 영재교육진흥법의 영재대상에 영재유아에 대한 규정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연령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고, 이는 특히 유아영재의 선발과 관련하여 그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재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거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 영재를 선발하는 일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선발의 성패가 전체적인 영재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Stanley(1998)는 지능이 우수한 아동들을 초기에 판별하여 교육을 통해 최상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나. 이러한 영재의 판별이 어린 연령의 시기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영재'라는 정의의 문제와 더불어 '유아'라고 하는 특정 시기의 발달적 특성 때문에 영재성이 쉽게 드러나기 어렵고,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또한 적절치 못함에서 오는 문제 때문이다.

영재의 판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 영재성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영재성의 정의는 비단 유아영재 판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영재성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재를 정의할 때 영재의 지적 능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정의내리고 있기 때문에 영재의 정의적 측면을 포함한 다면적 특성들을 함께 판별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영재아들은 자율성 자발성이 높아 의지가 굳고, 인내심이 강하며, 관심이 있는 일에는 끝까지 몰두하는 목표 지향적이며 강한 성격과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있다. 또 정서적인 안정도가 높고 정서적 취미 활동이 다양하며 다방면에 흥미와 관심이 있다. 지적 자극을 받고 싶어 하며 따라서 새롭고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기를 즐기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욕구가 높다. 또한 자기보다 성숙한 친구를 좋아하고 비 전제적 교사를 좋아하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별이 보다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김인숙, 1988: 재인용).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인 아동과는 차별되는 정의적 특성과 다면적 요인을 가진 영재아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대부분의 기관들은 일회에 걸친 지능검사나 그와 상응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별과정은 주로 아동의 인지적 측면을 보고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재의 특성 중 정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판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지적 측면 역시 일회의 지필검사 상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영재유아 판별의 문제점은 어린 연령의 유아에게 적합한 판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영재유아의 특성이 일반적인 유아기의 특성과 매우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재유아에 대한 정의와 판별은 보다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린 연령의 시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영재판별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Roeper(1977)에 의하면, 유아기가 영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아동들의 학습태도와 유형이 거의 형성되고 고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발달심리학자들도 유아기에 최대한 또는 최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발전시킬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86: 재인용). 때문에 발달론적 관점으로 살펴보더라도 영재교육은 보다 어린 연령의 영재아동을 초기에 판별하여 적합한 영재교육을 통하여 최상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영재의 영재로서의 다면적 특성과 함께 유아기의 발달 특징을 고려하여 영재성을 판별할 수 있는 적절한 판별도구의 연구와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유아영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판별절차와 도구를 분석하여 다양한 판별도구들 중 유아영재교육프로그램의 수행을 보다 정확하게 예언하는 진단도구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1회성 지필검사인 기초능력검사의 진단결과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의 예언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 다단계 진단수업을 통한 진단의 결과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의 예언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1. 진단수업의 인지적 측면의 진단결과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의 예언 간에

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2. 진단수업의 정의적 측면의 진단결과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의 예언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3. 진단검사의 각 요소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의 예언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영재대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경기도의 G연구원에서 일정한 단계를 거쳐 판별된 6~9세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G 연구원은 총 5회에 걸친 진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규준대비 상위 35% 이내의 아동을 영재성이 있다고 판별하며, 지능 이외의 인지적 측면의 발달과 정의적 측면의 발달 수준을 50 : 50의 비율로 비교, 고려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대상 아동을 선발한다. 이러한 절차로 선발된 아동들은 6개월 동안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고 그 후에 수행평가를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사전검사로는 검사자와 아동이 일대 일로 실시하게 되는 기초능력검사[1]와 3명 이상 6명 이하의 팀으로 4회 동안 이루어지는 진단수업프로그램[2]을 이용한다. 프로그램 사후 활용되는 검사도구는 수행평가지[3]로 5점 척도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한다. 진단수업평가지와 수행평가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진단수업평가 체크리스트는 아주 부족함, 부족함, 보통, 우수함, 아주 우수함의 5점 척도이며, 수행평가는 아주 부족함, 조금 부족함, 부족함, 보통, 조금 우수함, 우수함, 아주 우수함의 7점 척도로 나타낸다.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구하였으며, 유아영재를 판별하는 진단도구와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수행 예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고,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 10.0을 이용하였다.

---

1) TTCT, 웩슬러 지능검사를 참고하여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의 소장 최승언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의 책임연구원 전미란 박사가 2002년에 연구 개발한 검사 도구]

2) 김영채 박사의 '사고력:이론 개발과 수업'을 참고로 하여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의 소장 최승언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의 책임연구원 전미란 박사의 지휘아래 2003년 서울대 유아영재교육팀이 연구 개발한 검사 도구

3)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의 소장 최승언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의 책임연구원 전미란 박사의 지휘아래 2003년 서울대 유아영재교육팀이 연구 개발한 평가 도구

Ⅲ. 연구결과

1. 기초능력검사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과의 상관관계

영재의 지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지필검사도구인 기초능력검사에 의해 지능이 얼마나 영재교육프로그램에서의 수행을 예언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능력검사 및 기초능력검사의 하위 영역별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는 <표Ⅲ -1 >와 같다.

<표Ⅲ -1 > 기초능력검사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과의 상관관계

		수 행 평 가				
		적극성, 참여도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지식적 요소	전체
기초능력검사 진단	시각적 변별	.02	.01	-.24	.03	-.62
	추론	.02	-.01	.02	.27	.12
	유추	-.25	-.16	-.12	.27	-.05
	언어능력	-.30	.02	.12	.45*	.13
	상식과 어휘	.06	.02	-.11	.34	.12
	수 논리	-.15	.03	-.04	.17	.01
	공간지각(평면)	.05	.22	-.01	.08	.14
	공간지각(입체)	-.31	-.29	-.18	.13	-.17
	유창성	-.06	-.06	.16	.20	018
	융통성	-.07	-.00	.01	.09	.01
	독창성	-.01	.15	.25	.30	.24
	정교성	.01	.01	.29	.27	.22
	기억책략	-.17	-.07	-.07	.02	-.09
	전체	-.14	.01	.03	.40	.13

*=p<0.05, **=p<0.01

<표Ⅲ -1 >를 살펴보면, 인지적 측면을 진단하기 위한 지능검사도구인 기초능력검사의 하위 요인과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평가간의 상관관계는 기초능력검사의 언어능력과 수행평가에서의 지식적 요소에서 r=.45(p<.05)의 상관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행평가의 하위 요인 중 적극성 및 참여도와 기초능력검사 하위 요인들의 상관은

시각변별, 추론, 상식과 어휘, 공간지각(평면), 정교성과 실험능력을 제외하고는 9개의 영역간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수행평가 하위요인 중 정의적 요소 역시 시각변별, 언어능력, 상식과 어휘, 수 논리, 공간지각 (평면), 독창성과 실험능력을 제외한 전 영역이 부적상관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행평가 하위 요인 중 인지적 요소 역시 추론, 언어능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실험능력을 제외한 전 영역이 부적상관임을 알 수 있다.

2. 진단수업을 통한 진단의 결과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과의 상관관계

1) 진단수업의 인지적 측면 평가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과의 상관관계

영재아동의 진단과정에 있어서 인지적 측면을 진단수업 상에서 진단한 경우의 진단결과가 영재교육프로그램에서의 수행을 어느 정도 예언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진단프로그램의 하위 요인 중 인지적 측면과 수행평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인지적 측면의 하위 요인은 진단 수업프로그램 상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기본적 사고, 발달적 사고, 복합적 사고, 초인지적 사고 등의 사고기능으로 보았으며 수행평가의 하위 요인은 적극성 및 참여도,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지식적 요소로 나타내었다. 영재의 인지적 측면의 사고기능 진단과 수행평가간의 하위 요인 사이의 피어슨 단순적률성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Ⅲ -2 >와 같다.

<표III -2 >진단수업의 인지적 측면 평가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과의 상관관계

		수 행 평 가				
		적극성, 참여도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지식적 요소	전체
인지적 측면 진단	기본적 사고기능	.23	.19	.28	.53**	.42*
	발달적 사고기능	.18	.26	.29	.58**	.46*
	복합적 사고기능	.15	.12	.38	.48**	.39*
	초인지적 사고기능	.06	.27	.27	.46*	.36*
	전 체	.22	.12	.21	.44*	.35*

*=p<0.05, **=p<0.01

<표Ⅲ -2 >를 살펴보면, 인지적 측면의 진단에 있어서 하위 요인과 수행평가 하위 요인별 상관이 수행평가의 지식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요인별 상관을 살펴보면, 기본적 사고기능과 수행평가 하위 요인인 지식적 요소는 r=.53 (p<.01)의 상관을 갖으며, 발달적 사고기능과 지식적 요소는 r=.58 (p<.01), 복합적 사고기능과 지식적 요소는 r=.48 (p<.01), 초인지적 사고기능과 지식적 요소는 r=.46 (p<.05)의 상관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진단수업의 정의적 측면 평가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과의 상관관계

영재아동의 진단과정에 있어서 정의적 측면을 진단수업 상에서 진단한 경우 그러한 정의적 측면의 진단결과가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수행을 어느 정도 예언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진단프로그램의 하위 요인 중 정의적 측면과 수행평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정의적 측면의 하위 요인은 주의집중, 수행속도, 과제집착, 학습동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수행평가의 하위 요 인은 적극성 및 참여도,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지식적 요소로 나타낸다. 영재의 정의적 측면의 하위요인 진단과 수행평가간의 하위 요인 사이의 피어슨 단순적률성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 표Ⅲ-1 >과 같다.

<표Ⅲ-3> 진단수업프로그램의 정의적 측면 평가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과의 상관관계

		수 행 평 가				
		적극성, 참여도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지식적 요소	전체
정의적 측면 진단	주의집중	.23	.54**	.38	.39	.42*
	수행속도	.48**	.52**	.50**	.28	.46*
	과제집착	.11	.25	.24	.24	.39
	학습동기	.26	.31	.26	.05	.36*
	전체	.22	.12	.21	.44*	.35

*=p<0.05, **=p<0.01

<표III-3>를 살펴보면, 영재의 정의적 측면을 네 가지 하위 요인별로 나누어 진단한 결과와 수행평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수행평가의 하위요인인 정의적 요소와의 상관은 정의적 측면의 하위 요소인 주의집중과는 r=.54 (p<.01), 수행속도와는 r=.52 (p<.0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측면의 하위요인인 수행속도와 수행평가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수행평가의 하위 요인 중 지식적 요소와의 상관(r=.28)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성 및 참여도에서는 r=.48 (p,<01)의 상관을, 정의적 요소에서는 r=.52 (p<.01)의 상관을, 인지적 요소에서는 r=.50 (p<.01)의 상관을 보여, 정의적 측면의 진단에서의 하위 요인인 수행속도와 수행평가에서의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수행평가의 하위 요인에 있어서 지식적인 면과 정의적 측면에 있어서 하위 요인들의 진단을 살펴보면 주의집중과는 r=.39, 수행속도와는 r= .28, 과제집착과는 r=.23, 학습동기와는 r=.05로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하여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의적 측면의 진단 중 과제집착은 수행평가 하위 요인 중 적극성 및 참여도에서 다른 측면들에 비해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3. 진단검사의 각 요소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과의 상관관계

영재아동의 진단과정에 있어서 사용된 진단검사들 간의 상관을 통해 진단검사의 각 요소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사전검사도구인 기초능력검사 및 진단수업프로그램과 사후검사도구인 수행평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진단수업프로그램의 요소는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나타내며, 수행평가의 요소로는 적극성 및 참여도,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지식적 요소로 나타낸다. 진단검사의 각 요소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간의 피어슨 단순적률성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Ⅲ-4 >와 같다.

〈표Ⅲ-4〉 진단검사의 각 요소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과의 상관관계

		수 행 평 가				
		적극성, 참여도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지식적 요소	전체
기초능력검사총점		-.14	.01	.03	.49*	.13
진단수업 프로그램	인지적 측면	.22	.12	.21	.44*	.35
	정의적측면	.31	.53**	.47**	.45*	.57**
	전체	.29	.31	.35	.51**	.50**

*=p<0.05, **=p<0.01

<표Ⅲ-4>에서 살펴보면, 기초능력검사 총점과 수행평가의 각 요소 간에는 수행평가의 지식적 요소에서의 상관(r=.40)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단수업프로그램의 하위 요소들 중 정의적 측면과 수행평가의 각 요소 간에는 정의적 요소와는 r=.53(p<.01)의 상관을, 인지적 요소와는 r=.47(p<.01)의 상관을, 지식적 요소와는 r=.45(p<.05)의 상관을 갖으며, 적극성 및 참여도를 제외하고는 수행평가 전체와 r=.57(p<.01)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진단수업프로그램의 하위 요소들 중 인지적 측면과 수행평가의 각 요소 간에는 지식적 요소와의 상관(r=.42)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단수업프로그램 전체와 수행평가 전체의 상관을 살펴보면, r=.50(p<.01)의 유의미한 상관임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아의 인지적 측면의 하위 요인 중 지능의 진단을 1회의 기초능력검사로 측정한 결과와 프로그램 수행의 예언 간에는 언어능력과 지식적 요소와의 상관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상관을 보였다.

즉, 시각적 변별, 추론, 유추, 언어능력, 상식과 어휘, 수 논리, 공간지각 입체, 공간지각 평면, 창의성, 기억책략 의 영역에서 실시한 진단과 수행평가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언어능력의 진단이 우수한 경우의 영재아는 지식적 요소와 관련된 수행을 우수하게 해 낼 수 있을 뿐, 다른 영역들에서의 상관은 아주 낮거나 부적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기초능력검사로 이루어지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지능의 진단과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의 예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재아의 인지적 측면의 하위 요인 중 사고기능을 진단수업프로그램으로 측정한 결과와 프로그램 수행의 예언 간에는 수행에서의 지식적 요소와의 상관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단 상에서 기본적 사고기능, 발달적 사고기능, 복합적 사고기능, 초인지적 사고기능이 우수한 경우의 영재아들은 영재교육프로그램에서 지식적 요인과 관련된 수행을 우수하게 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와 비교하여 적극성이나 참여도는 낮았고, 정의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가 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활동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영재아동의 정의적 측면의 하위 요인 중 수행속도 및 주의집중을 진단수업프로그램으로 측정한 결과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의 예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재아의 수행속도에 대한 진단결과가 우수한 경우 영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이며, 참여도가 높았고, 정의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의 수행도 대체로 우수하였으며, 주의집중에 대한 진단결과가 우수한 경우의 영재아동 역시 정의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에서 고르게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의적 측면의 하위 요인 중 과제집착 및 학습동기에 대한 진단과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의 예언 간에는 수행속도 및 주의집중요인과 비교했을 때보다 낮은 상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의적 측면의 진단에 있어서 수행속도와 주의집중이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수행을 예언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정의적 측면의 진단 중 과제집착과 학습동기는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수행의 예언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영재의 판별도구 중 기초능력검사보다 진단수업프로그램이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의 예언과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초능력검사와 같이 1회에 진행되는 지필검사보다 진단수업프로그램과 같이 다단계로 진행되는 검사인 경우, 유아영재의 다면적 특성과 발달적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고려한 판별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하여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수행을 보다 잘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 고 문 헌

Ⅰ. 국내문헌

강숙희, 조석희, 장영숙, 류숙희, 조영주(1999). 영재 교수-학습자료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곽소영(1998). 주의집중 검사 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1994). 영재 판별 평정척도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인섭, 이신동, 이경화, 박숙희(2001). 영재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학문사.

송인섭, 박정옥(1995). 지적능력에 따른 성격차원의 격차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제 9권 제2호.

신현정(2004). 영재아동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태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정명(2004).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기질과 정서지능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여홍(1996). 영재 아동의 정서 특성에 관한 임상 연구. 학국영재학회, 제6권 1호

이종승(1980). 영재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장언효, 조석희(1980). 영재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정미숙(1996). 정의적 변인들 간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분석. 교육학회지, 34(1), 131-148

정연갑(2001). 중학교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춘옥(2000). 주의집중 훈련 프로그램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주의집중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숙균(1999). 중학교 1학년 수학과에서 심화반을 대상으로 한 수행평가 실시와 그 효과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문식(1992). 영재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Ⅰ. 국외문헌

Abraham, W.(1976). Counseling the gifted. Focus on Guidance, 9, 1-11.

Arsher, M. J.(1989). Self-instruction training for teachers and other professional working with Attention Defiicit-Hyperactive Disorder childre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Barkely. R. A.(1981). Behavioral assesment of childhood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Clark, B. (1992). *Growing up gifted(6th ed.).* Merrill Pub.

Dabrowski. K.(1972). Psychoneurosis is not an illness. London; Grif.

Gallagher, J.(197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Hollingworth, L. S. (1975). *Children above 180 IQ.* New York: ArnoPress, reprint of the 1942 edition.

Renzulli, J. S., Hartman, R. K., & Callahan, C. M.(1971). Teacher identification of superior students. Exceptional Children, 38,211-214.

Tannenbaum, A. J.(1986). Giftedness : A psychological approach. In R. J. Stenberg & Cambridge University press.

Terman, L. M.(1925). Genetic studies of genius :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Vol. 1). Stanford University press.

Webb, J. T. (1993).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K. A. Hellen, F. J. Monks, & A. H. Passow (Eds.),*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e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p. 525-538), Pergamon Press

Whitmore, J. R.(1980). Giftedness, conflict and underachievement. Boston : Allan & Bacon